



[산업]
출시 임박한 '아이폰 11'
혁신없는 모방에
벌써 혹평
06

[라이프]
'테마파크야 아울렛이야'
신세계파주점
6년 만에 대변신
L1



맥주맛에 반하고, 풍경에 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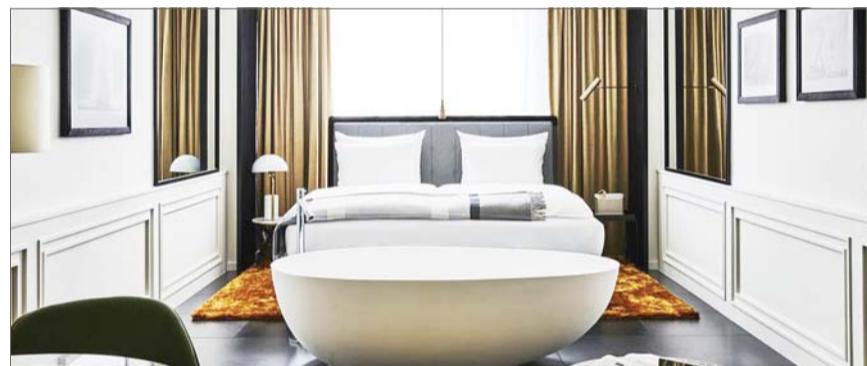
맥주애호가 유혹하는 가을 유럽

호텔스컴바인 맥주여행 빅3 추천

갑자기 다가온 가을, 특별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역사와 특색이 담긴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계획해보면 어떨까. 특히 맥주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는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티벌(Oktoberfest)이 열려 올 가을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글로벌 호텔 검색 엔진 호텔스컴바인이 지난 30일, 독일을 비롯, 체코 플젠, 핀란드 탐페레에서 특별한 맥주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해왔다.



체코 플젠 '비엔나 하우스 이지 플젠' 호텔은 안락하면서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독일 '루마스 원 헨 오토그래프 컬렉션' 호텔내부는 스파와 웰니스 센터 등이 마련돼 있어 여행 중 피로를 풀기에도 좋다.

/호텔스컴바인

◆맥주 축제 본고장, 독일 뮌헨

맥주 여행에서 독일은 단연 탑이다. 호텔스컴바인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은 8위를 차지한 인기 유럽 여행지다. 특히, 가을에는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뮌헨을 강추한다. 뮌헨은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의 본고장이며, 올 축제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린다.

뮌헨은 바로크, 로코코 양식 등 여러 문화가 융합된 예술 도시로도 불린다. 프라우엔 교회부터 세계 6대 미술관 중 하나인 알테 피나코테크까지 아름다운 랜드마크도 잊지 말고 방문해 보길 바란다.

루마스 뮌헨 오토그래프 컬렉션은 트렌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호텔이다. 객실과 식당 등 호텔 곳곳에 놓여진 세련된 장식과 가구는 독특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준다. 또한, 뮌헨의 하카부르케역 근처에 위치해 뮌헨 주변 지역까지 쉽게 이동 및 관광 할 수 있다.

◆황금빛 라거 맥주의 도시, 체코 플젠

호텔스컴바인의 유럽 여행지 순위에서 서단연 6위를 차지한 체코는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다.

특히, 호텔스컴바인은 체코 서부에 위치한 플젠 지역에 주목했다. 다양한 볼거리 중 '필스너 우르켈 공장'은 관광객들이 맥주 양조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최고인기다.

체코 플젠 내 편리한 접근성을 갖춘 곳을 찾는다면, 비엔나 하우스 이지 플젠을 추천한다. 우수한 접근성 덕에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객실에는 짙은 검은색, 산호색, 노란색 톤의 가구와 장식품들이 동유럽 특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숨겨진 맥주 강자, 핀란드 탐페레

동화 같은 풍경으로 사랑받는 핀란드 또한 맥주 강국으로 한표를 줄만하다. 핀란드는 호텔스컴바인 유럽 여행

지 순위에서 당당히 16위를 차지했다. 핀란드의 남서부에 위치한 탐페레에서 탄생한 여러 맥주들은 크고 작은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하다. 탐페

레 관광청에 따르면, '플레브나 브루어리 웨 앤드 레스토랑'은 핀란드의 유명한 맥주 양조장 중 하나다. 핀란드 고유의 전통 분위기 속에서 시원한 흑맥주를 맛볼 수 있어 현지인과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그만이다.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400명을 한꺼번에 수용 가능할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 양조장이다. 이 곳의 맥주는 텁에서 직접 따르기 때문에 신선하며, 핀란드 전통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어 맥주 애호가들의 마음을 한껏 매료시킨다. 탐페레의 네시에르비 호수 앞에 위치한 허리데이 클럽 탐페렌 킬필라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에 더 없는 호텔이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필리핀관광부 "올 韓관광객 200만명 방문 예상"

부들파이트 소개 등 프로젝트 진행

7107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세계, 보리카이와 같이 아름다운 푸른 빛깔 바다와 망고, 깔라만시, 파파야 등 다양한 열대과일로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다.

필리핀관광부 한국지사 발표에 따르면 작년 162만명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5% 이상 한국 방문객이 늘어, 200만명 목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들파이트.
최근, 필리핀 관광청 본청은 수도 마닐라를 '건너뛰기 불가능한 매력적인

도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필리핀관광부 한국지사는 27일 성북동 조비스그릴에서 필리핀 음식 부들파이트(필리핀식 음식문화) 소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에 왕 주한 필리핀 대사와 마리아 아포 필리핀관광부 한국지사장이 참여해 부들파이트를 소개하고 한국 추석 의미와 더불어 필리핀 현지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민희 기자

여행 단신

괌정부관광청, 항공사와 손잡고 여행사 지원 박차

괌정부관광청은 FSC(풀서비스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 등 팝노선 운항 항공사와 공동으로 세일즈 콘테스트 및 다양한 B2C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한국 방문객 유치 및 성장을 위해 힘쓰다는 방침을 다시금 밝혔다.

괌정부관광청은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세일즈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총 8개의 대리점 (▲KRT, ▲한진관광, ▲하나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인터파크투어, ▲보물섬투어)을 대상으로 부진 요일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다.

또한, 괌정부관광청은 진에어와 공동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간 진행한 세일즈 콘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20일, 각 수상 여행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일즈 콘테스트 시상식을 가졌다.

세일즈 콘테스트는 비수기 시즌과 판매가 저조한 요일 기간 동안 괌 상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괌 노선 진에어 블라자 총 12곳(▲인터파크 ▲온라인투어▲롯데관광▲노랑풍선▲롯데JTB▲모두투어▲하나투어▲참좋은여행▲KRT▲에어텔닷컴▲한진관광▲자유투어)이 참가했다. /이민희 기자

팬퍼시픽항공 인천-필리핀 클락 신규취항 기념 특가

최근 일본여행불매 등으로 인해 많은 항공사들이 동남아 등 새로운 목적지로 취항하거나 운항편수를 늘리고 있다.

필리핀 국적 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이 10월 2일부터 인천-클락 노선에 매일 운항 일정으로 신규 취항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특가 항공권을 왕복 22만 2900원부터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필리핀 클락은 인천에서 약 4시간 이내 비행 시간이 소요되는 가까운 목적지이며 클락 공항에서 대부분의 주요

리조트와 호텔로 30분내 이동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가성비 좋은 골프장이 많아 골프 여행지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여행 스파이 있어 가족여행으로 추천되는 휴양지다.

팬퍼시픽항공은 인천에서 오전 6시 20분에 출발해 오전 9시 20분에 클락에 도착하며, 귀국편은 클락에서 오후 7시에 출발하여, 인천에 오후 11시 5분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현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여행 일정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잘츠부르크 주 관광청 "푸른 알프스 만나보세요"

잘츠부르크 주 관광청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알파인 씨머'를 맞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알파인 씨머'는 수 세기 동안 알프스 농부들에게 일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다. 알프스 산맥을 뒤덮고 있던 눈이 녹으면 농부들은 초원으로 소, 양, 염소 등을 몰고 와 산장에 머무르면서 가축을 돌본다. 오늘날 '알파인 씨머'는 전통적인 농경문화를 넘어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눈 덮인 알프스가 아닌 푸른 알프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알파인 씨머를 경험하고 싶은 여행객들은 9월 말까지 잘츠부르크랜드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알파인 씨머에서 빼질 수 없는 체험이 바로 산 중턱에 있는 오두막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잘츠부르크랜드에는 가지각색의 오두막이 있으며, 그중



잘츠부르크 주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알파인 씨머'를 맞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초원에서 생산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한다.

/잘츠부르크 주 관광청

173개의 오두막이 진정한 알파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특별한 증서인 'Almsommer'를 보유하고 있다.

오두막에서는 주인들이 지친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재배한 농작물 혹은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식만을 제공한다. /이민희 기자

보물섬투어 옵션 비용 '200% 환불 보장' 상품 출시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항공, 호텔, 여

행 코스, 이동시간 등을 일일이 직접 책 기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자유여행 대비 저렴한 가격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추가 옵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물섬투어에서 패키지 여행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옵션 비용 요구 시 200% 환불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품은 보물섬투어의 3박 5일 다낭·호이안 여행에 포함된 기본 옵션 혜택 이외에 현지에서 가이드가 추가 옵션을 요구한다면 '옵션 비용의 200%를 환불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오전, 오후 출발의 다양한 비행 스케줄을 제공하며 전 일정 호텔 스위트룸 숙박과 다낭 바빌론 스테이크를 포함한 고퀄리티 특식을 제공한다. /이민희 기자